

##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

김 은 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변인들이 다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전반적 발달장애 48명, 정신지체 73명과 그들의 어머니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도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민감성, 아동의 지적능력과 언어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양한 변인들 중에 어머니의 민감성만이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정신지체와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 모두에게 다른 변인들에 비해 어머니의 민감성이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주요어: 장애아동, 애착안정성, 어머니의 민감성

애착은 어머니와 아동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로 모든 사회적 관계의 원형이다(Bowlby, 1958, 1969). 특히 출생 후 오랫동안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장애아동에게 애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애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장애아동의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의 형성여부에 관한 연구들(Atkinson et al., 1999; Capps, Sigmam, & Mundy, 1994; Dissanayake &

Crossley, 1996; 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1, 1993)은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연구들은 특히 사회성 결핍을 주 특징으로 보이는 자폐성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과거에는 자폐성 장애아동은 애착에 필요한 눈 맞춤이나 사회적 미소가 없으며,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부족하고 타인의 마음을 읽거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여서 양육자와 애착형성이 안된다고 가

\* 교신저자: 김은실, E-mail: gender@hanmail.net

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폐성 장애아동도 낮은 상황에서 양육자를 타인에 비해 더 선호하고 양육자에게 분명한 애착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한 연구들(Capps, Sigmam, & Mundy, 1994; Dissanayake & Crossley, 1996; 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1, 1993)이 보고되면서 자폐성 장애아동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견이 모아졌다. 자폐성 장애아동의 애착형성 가능성은 다양한 장애유형의 애착안정성을 알아본 연구들(Atkinson et al, 1999; Lederberg & Mobley, 1990; Woolfe, Want, & Siegel, 2002)과 더불어 장애아동도 애착안정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아동도 애착안정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들의 영향으로,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에 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장애아동이 보이는 장애특성에만 관심을 보이며, 장애유형이나 장애의 심각도(Capps, Sigmam, & Mundy, 1994; Lederberg & Mobley, 1990; 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1, 1993; van Ijzendoorn et al., 1992; Vaughn et al., 1994),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Lederberg & Mobley, 1990; Dissanayake & Crossley, 1996; 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1, 1993)등 장애아동의 발달특성과 관련된 변인들과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이 모여졌다. 특히 이들 변인 중에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은 아직까지도 연구대상에 따라서 연구자간의 논쟁거리로 남아있는데, 그 논쟁은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장애아동에 비해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지적능력과 언어능력이 애착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애착안정성이 더 잘 형성한다고 주장한 연구들(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1, 1993; Sigman & Ungerer, 1984)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Rogers, Ozonoff와 Maslin-Cole(1991)은 자폐성 장애아동 17명과 다른 장애아동 17명을 대상으로 애착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폐성 장애아동도 다른 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양육자에게 애착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장애아동은 발달수준에 따라서 애착행동이 서로 다르지 않았으나 자폐성 장애아동은 발달수준에 따라서 애착행동의 질이 서로 달랐다.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발달수준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을 시사한다. 또한 Rogers, Ozonoff와 Maslin-Cole(1993)은 자폐성 장애아동과 다른 장애아동의 애착행동을 생활연령, 정신연령, 비언어적 지능, 언어수준, 자폐성향의 심각도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이들 아동의 50%는 애착행동을 보였으며, 애착행동은 자폐성향이나 생활연령과는 관련이 없으나, 언어 및 정신연령과 관련이 있었다. 이들 연구들(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1, 1993; Sigman & Ungerer, 1984)은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발달수준이 중요한 변인임을 주장하며, 발달수준을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거나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과 달리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이 애착안정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연구들(Dissanayake & Crossley, 1996; Shapiro et al., 1987; Sigman & Mundy, 1989)도 있다. 예를 들면, Shapiro와 그의 동료들(1987)은 자폐성 장애아동과 정신지체, 학습장애아동의 애착유형을 지적발달의 정도로 알아보았는데, 이 세집단의 애착유형은 차이가 없었으며 발달정도에 의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애착유형이 장애유형이나 지적발달과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Dissanayake와 Crossley(1996)는 16명의 자폐성 장애아동, 일반아동, 다운아동의

생활연령, 언어 및 비언어적 능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애착행동을 서로 비교하였는데, 이들은 언어적 및 비언어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양육자에게 애착행동을 더 보였다. 이처럼 장애아동의 발달수준과 애착안정성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연구들 간에 서로 주장들이 다르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대상의 발달이나 지적능력들을 측정하는 방법과 도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자폐성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은 비언어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 간에는 차이가 현저하여 비언어적 능력만을 발달수준에 포함시킨 연구(Sigman & Ungerer, 1984; Shapiro et al., 1987)의 경우는 발달수준과 애착안정성이 서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언어적인 능력을 포함하여 아동의 발달능력을 평가한 연구(Capps, Sigman, & Mundy, 1994; 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1, 1993)의 경우는 발달수준과 애착안정성에 관련성이 높을 수 있다. 이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특성상 언어적 능력도 지적발달에 포함시켜 연구대상을 선별한 경우는 다른 연구대상들보다 더 높은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오염변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연구대상의 연령도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연구대상의 발달연령이 만 2세 이하인 경우(Atkinson et al., 1999; Brooks-Gunn, 1984)는 아동의 발달수준과 애착안정성 간에 서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발달연령이 만 2세에서 3세 이상인 경우(Dissanayake & Crossley, 1996; Shapiro et al., 1987; Sigman & Ungerer, 1984)는 아동의 발달수준과 애착안정성 간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Bowlby (1958, 1969)의 애착 발달과정 상, 애착안정성은 대상영속성이 획득되고 내적인 표상이 가능한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에 형성되는데, 이때 아동의 연령은 실제적으로 인지연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달연령이 만 2세에서 3세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이미 애착안정성이 형성되어 있어 발달수준이 애착안정성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발달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연구대상의 발달연령의 문제등으로 인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애착안정성과 장애아동의 발달수준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적 맥락등과 같은 변인들은 무시하고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같은 아동의 장애특성이 애착안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들(Atkinson et al., 1999; Capps, Sigman, & Mundy, 1994)에 힘입어,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방향이 장애아동의 장애특성에서 조금씩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은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입증되기 시작하였다(Atkinson et al., 1999; Capps, Sigman, & Mundy, 1994; van Ijzendoorn et al., 1992). 예를 들면, van Ijzendoorn와 그의 동료들(1992)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애착안정성에 중요한 변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장애유형

보다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애착안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는 다운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의 민감성을 2년 동안 추적 조사한 Atkinson 등(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Atkinson 등(1999)은 14개월에서 30개월 된 53명의 다운장애아동을 2년간 추적 조사하여 어머니의 민감성과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상관을 보였다. Capps, Sigmam와 Mundy(1994)도 자폐성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장면을 비디오 관찰을 통하여 알아보았는데, 자폐성 장애아동은 상호작용 시 어머니의 민감성이 높을수록 애착안정성을 더 잘 형성하였다. 이들 연구들(Atkinson et al., 1999; Capps, Sigmam & Mundy, 1994; van Ijzendoorn et al., 1992)은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는 아동의 장애유형이나 인지 및 지적발달과 같은 아동의 발달수준보다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어머니의 특성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민감성은 일반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졌다(이진숙, 2001; Beckwith, Cohen, & Hamilton, 1999; Valenzuela, 1997; Pederson et al., 1998; Ward & Carlson, 1995), 어머니의 민감성은 초기의 애착이론가들(Bowlby, 1969)도 중요하게 다룬 변인으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다. van den Boom(1997)은 어머니의 민감성을 아동의 요구를 감지하는 능력으로만 정의하였으며, Ainsworth (1989)은 어머니의 민감성을 아동의 요구와 신호를 어머니가 정확하게 알아내고 이에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민감성을 Ainsworth(1989)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아동행동에 대한 지각뿐 아니라 어머니의 행동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어

머니의 민감성은 부모-아동간의 애착의 질과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자 아동의 애착안정성을 가장 잘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Isabella, 1993; Pederson et al., 1990, 1998; Valenzuela, 1997)과 저소득층 집단 (Fish & Stifter, 1995; Isabella, 1993; Valenzuela, 1997) 및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Pederson et al., 1990; Wartner et al., 1994)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어머니의 민감성이 비록 중요한 변인이지만 애착안정성을 단독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De Wolff와 van IJzendoorn(1997)의 연구결과에 의해 민감성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었다. De Wolff와 van IJzendoorn(1997)는 Ainsworth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면서 어머니의 민감성과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60여 편의 선행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이 전적으로 애착안정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애착안정성이 어머니의 민감성 이외에 다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사회 환경적 변인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머니의 민감성 이외에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경혜, 2001; 정혜승, 김광웅, 2001; Adam, Gunnar, & Tanaka, 2004; Atkinson et al., 2005; Cowan, 1997; Easterbrooks, Biesecker, & Lyons-Ruth, 2000; Huth-Bocks et al., 2004; Lyons-Ruth, Easterbrooks, & Cibelli, 1997; Slade et al., 1999)을 발전시켰다. 지금까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는 어머니의 우울(Adam, Gunnar, & Tanaka, 2004; Easterbrooks, Biesecker, & Lyons-Ruth, 2000)과 양육스트레스(신숙재, 1997; 이경혜, 2001; Atkinson et al.,

1995)와 같은 변인들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 환경적 변인 중에서는 사회적 지지(신숙재, 1997; Huth-Bocks et al., 2004)와 결혼만족도(구미향, 2000; 박경자, 권연희, 2002)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Adam, Gunnar와 Tanaka (2004)는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부정적이고 불안한 정서를 보이는 어머니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 아동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우울성향이 높은 경우에도 아동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며(Lyons-Ruth, Easterbrooks, & Cibelli, 1997; Stevenson-Hinde & Shouldice, 1995), 어머니가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을 가졌을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아동에게 강요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적절한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였다(O' Connor, 1997, 재인용). 이처럼 일반아동의 애착안정성에는 어머니의 민감성 뿐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장애유형이나 발달수준과 같은 아동의 장애특성과 관련된 변인에만 주제가 한정되어 있을 뿐,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와 같은 사회 환경적 변인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 특히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들은 장애아동의 환경과 행동을 연구하는데 빠지지 않는 변인들이다.

장애아동의 출생순간부터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심리적 및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심리적으로 우울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장애아동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권복순, 박영준,

2003; 이한우, 2002; 이현지, 2004; 홍영수, 김재엽, 2003; Dunn et al., 2001). 예를 들면, 이한우(2002)는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동의 어머니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가족구성원 개개인과 가족 전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가족 전체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홍영수와 김재엽(2003)은 사회적 지지원인 배우자의 지지가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나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들은 장애아동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탐색되어야 할 변인들임에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 연구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진 변인들이다.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들(Atkinson et al., 1999; Capps, Sigman, & Mundy, 1994; Dissanayake & Crossley, 1996; Lederberg & Mobley, 1990; 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3; van Ijzendoorn et al., 1992; Vaughn et al., 1994)을 종합해보면, 장애아동도 애착안정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는 아동의 장애적 특성 뿐 아니라 어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도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장애유형, 지적능력, 언어능력과 같은 장애아동의 발달특성이나 어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한정된 주제만을 다룰 뿐, 일반아동을 통하여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다른 사회 환경적 변인이나 어머니의 민감성을 제외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거나 한두

가지 특정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또한 지금까지의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관한 연구들은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같이 애착안정성을 형성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Cohen, Paul, & Volkmar, 1987; Dawson & Lewy, 1989; Sigman & Ungerer, 1984). 하지만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 간의 의견차이, 결혼 만족도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 환경적 변인이나 어머니의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의 부족,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논쟁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에게 사회적 관계의 원형이 되는 애착안정성을 좀 더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이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주고받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응에 기본이 되는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를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회 환경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아동의 발달수준과 같은 다양한 변인 중에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하여 일반아동에게 그 중요성이 입증된 사회 환경적 변인 중에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그리고 어머니의 특성 중에서 우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민감성 등과 같은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

한 장애유형 중,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아동과 애착안정성의 형성과정이 가장 동일하다고 알려진 정신지체아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폐성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지적능력, 아동의 언어능력, 어머니의 민감성이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장애유형에 따라서 이들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에 주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생활연령이 만 3세에서 만 7세 사이의 장애아동 중에서 발달연령이 만 24개월 이상 되는 아동과 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121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애착이론(Bowlby, 1969)에 의하여, 대상영속성의 개념이 획득되고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이 가능한 발달연령이 24개월 이상의 아동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아동은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 중에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의 진단준거와 각 장애유형을 선별하는 선별도구를 통하여 아동의 장애여부와 유형이 확인된 아동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연구들(Fish & Stifter, 1995; Valenzuela, 1997)에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사회 환경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가족형태는 핵가족으로 하였으며, 편모가족이나 편부가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비 취업모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수준도 고졸이상의 중류층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는 31세에서 40세가 각각 71.07%와 85.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1세에서 50세가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는데, 아버지는 65.29%, 어머니는 62.8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고졸로 각각 21.49%, 31.40%로 나타났다. 가정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42.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 아동의 경우, 정신지체아동 73명, 전반적 발달장애아동 48명으로 그중에서 남자 87명, 여자 34명으로 남자가 많았으며,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남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생활연령은 73개월 이상이 57%로 가장 많았는데, 정신지체는 47.9%, 전반적 발달장애도 70.8%로 동일하였다.

표 1.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아버지		어머니	
		빈도	%	빈도	%
연령	30세 이하	-	-	4	3.31
	31-40세	86	71.07	103	85.12
	41-50세	34	28.10	14	11.57
	51세 이상	1	0.83	-	-
학력	고졸	26	21.49	38	31.40
	대졸	79	65.29	76	62.81
	대학원졸	16	13.22	7	5.79
가정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7	14.05		
	200-300만원	47	38.84		
	300만원 이상	52	42.98		
	무응답	5	4.13		
합계	121	100			

아동의 발달연령은 만 2-3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6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만 4-5세, 만 6-7세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연령은 20-36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 71.1%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유형 중에서 정신지체와 전반적 발달장애아동의 경우는 만 20-36개월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능은 전체아동에게서는 36-50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이 52.9%로, 51-70까지 해당하는 아동이 43.8%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지체아동의 경우는 51-70에 해당하는 경우가 52.1%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 발달장애아동의 경우는 36-50에 해당하는 경우가 60.4%로 가장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및 심리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및 심리적 특성

		전체		정신지체		전반적 발달장애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	87	71.9	48	65.8	39	81.3
	여	34	28.1	25	34.2	9	18.8
생활 연령	36-60개월	24	19.8	17	23.3	7	14.6
	61-72개월	28	23.1	21	28.8	7	14.6
	73개월 이상	69	57.0	35	47.9	34	70.8
발달 연령	만2-3세	76	62.8	44	60.3	32	66.7
	만4-5세	32	26.4	21	28.8	11	22.9
	만6-7세	9	7.4	7	9.6	2	4.2
	만8세 이상	4	3.3	1	1.4	3	6.3
언어 연령	20-36개월	86	71.1	48	65.8	38	79.2
	37-48개월	13	10.7	9	12.3	4	8.3
	49-60개월	15	12.4	12	16.4	3	6.3
	61개월 이상	7	5.8	4	5.5	3	6.3
지적 능력	36-50	64	52.9	35	47.9	29	60.4
	51-70	53	43.8	38	52.1	15	31.3
	71-85	4	3.3	0	0.0	4	8.3
합계	121	100.0	73	100.0	48	100.0	

## 측정도구

### 1) 어머니 측정도구

#### 어머니의 민감성척도(Maternal Behavior Q-set: MBQ)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Pederson 등(1990)이 개발한 어머니 행동 Q-set(Maternal Behavior Q-set: MBQ)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을 묘사한 90개의 문항으로 어머니의 양육방식,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에 대한 주의, 상호작용방식, 의사소통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실시방법은 관찰자나 어머니가 직접 Q-sort 방법으로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을 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 9점까지 각 10개의 카드를 분류한다. 그 다음 분류한 점수와 준거점수간의 상관점수를 통하여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관찰자와 어머니간의 측정점수간의 신뢰도가 .76으로 나와 어머니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였다.

####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dex; BDI)

어머니의 우울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김정미(2001)의 연구에 사용된 Beck의 우울증 척도 BDI(Beck Depression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각 문항 당 0-3점까지의 점수가 할당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 양육스트레스척도 (PSI: Parenting Stress Index)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도구는 Abidin(1990)이 개발한 PSI를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영역과 부모 영역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된 48문항의 설문지로 전체 문항 및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76- .88이었다.

#### 사회적 지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지원척도(박지원, 198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편 외의 주위 사람으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를 측정한다. 전체 12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 Roach, Frazier, & Bowden, 1981)를 간략형으로 수정한 유은희과 박성연(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7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4이었다.

### 2) 아동 측정도구

#### 애착안정성척도(Attachment Behavior Q-set: AQS)

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Waters와 Deane(1985)이 제작한 애착Q-set(Attachment Behavior Q-set: AQS)의 개정판을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애착행동을 기술하는 90장의 카드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영역은 5개 영역으로 까다로움, 순응, 신체적 접촉, 안정기반 행동, 정서적 공유로 구성되었다(Perderson et al., 1990). 실시방법은 Q-sort방법

으로 아동의 행동을 나타내는 90장의 카드를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 9점까지 10장씩 나눈다. 점수는 어머니가 측정한 원점수와 준거점수간의 상관점수로 측정된다. 준거점수는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된 국내준거점수(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를 사용하였다.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이 도구는 만 3세에서 7세 3개월 된 아동의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6개의 동작성 소검사와 6개의 언어성 소검사로 구성되었다. 채점방법은 각 소검사별로 원점수를 가지고 연령에 따라서 환산점수를 얻게 되는데, 이 환산점수로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 및 전체 지능지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지적능력과 정신지체아동을 감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취학 전 수용-표현 언어척도 (PRES: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이 도구는 언어발달 수준이 만 2세에서 6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수용 언어영역과 표현 언어영역의 문항이 각각 45개씩, 총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영역 모두 15개의 언어발달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 1세 6개월에서 4세까지는 3개월 간격으로, 4세 1개월에서 6세 6개월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내적 신뢰도 계수는 .95로 매우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연령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3) 통제변인 측정도구**

**사회성숙도검사**

이 검사는 바이랜드 사회성숙척도(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Doll, 1965)를 모체로, 우리나라에서 김승국과 김옥기(1985)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로는 1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발달연령을 측정하고 정신지체 아동을 감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아동기 자폐증 척도 (CARS: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자폐성 장애아동을 감별하기 위해 김태련과 박랑규(1996)가 개발한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CARS)를 사용하였다(임숙빈, 1997, 재인용). 이 척도는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는 14문항과 아동의 일반적인 인상을 물어보는 문항 1개를 합해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에 따라서 경증 및 중증의 자폐증으로 판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을 감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절 차**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비조사에서는 연구도구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본 조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연령이 만 3세에서 만 7세 이하의 아동과 그 어머니 2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민감성 척도(MBQ)를 어머니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관찰자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민감성 척도(MBQ)를

실시 한 후, 1주일 후에 임상심리전문가 1명이 가정으로 방문에 어머니의 행동을 2시간동안 관찰한 다음, 어머니의 민감성 척도(MBQ)를 실시하여 어머니와 관찰자 간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신뢰도는 .7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감성 척도(MBQ)를 어머니가 직접 실시하였다. 또한 애착안정성 척도(AQS), 어머니의 민감성 척도(MBQ) 문항 중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문항(5문항)은 이해하기 쉬운 문항을 바꾸었으며 나머지 문항은 본 조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서울, 경기도에 있는 통합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세에서 만 7세까지의 장애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 중에서 임상심리전문가 1명과 임상심리사 1명이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의 진단 준거와 별도의 장애선별도구를 통하여 아동의 장애유형이 확인된 장애아동만을 선별하였다. 장애유형에 대한 평가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논의 후에 장애유형을 분류하였는데, 평가자간의 신뢰도는 .8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더라도 장애선별도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이나 발달연령이 만 24개월이 되지 않는 아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가정에서 설문지를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문지를 완성한 1주일 후에 개별적으로 실험실에서 애착안정성(AQS)와 어머니의 민감성(MBQ) 척도를 Q-sort방법으로 실시하였다. Q-sort 방법은 90장의 카드를 아동이나 어머니의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에 10장씩 나누는 방법이다. 연구자

는 Q-sort방법의 생소함과 측정도구 문항의 이해도를 돕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도움과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 결 과

본 연구결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두 번째는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 마지막으로 장애유형에 따라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 1.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19, p<.001$ ). 하지만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발달수준을 나타내는 변인인 언어연령( $r=.214, p<.05$ )과 지적능력( $r=.223, p<.05$ )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상관은 낮았다. 즉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아동의 언어연령, 지적능력과 서로 상관이 있지만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이 없다.

### 2.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간 상관이 높아서 다중공선성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tolerance)와 변량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관련변인들의 공차(tolerance) 범위가 .523 ~ .893, 변량팽창지수(VIF) 범위는 1.120 ~ 1.913이었다. 다중공선성이

표 3.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상관

	애착안정성	모민감성	사회적지지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연령	지적능력
애착안정성	1							
모민감성	.419***	1						
사회적지지	.120	.217*	1					
결혼만족도	-.054	.146	.382***	1				
양육스트레스	-.101	-.126	-.407***	-.329***	1			
우울	-.057	-.280**	-.313***	-.421***	.514***	1		
언어연령	.214*	-.030	.016	-.166	-.052	.172	1	
지적능력	.223*	.017	-.019	-.207*	.040	.192*	.678***	1
평균	.022	-.002	41.44	56.339	136.64	11.221	33.740	52.600
표준편차	1.011	1.024	8.93	12.504	27.03	7.705	14.771	11.640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애착안정성과 모민감성은 표준화된 점수임.

표 4.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관련변인들이 미치는 영향

	<i>B</i>	<i>SE</i>	$\beta$	<i>t</i>	$R^2$	<i>F</i>
상수	-.164	.952		-.172		
사회적지지	.005	.011	.045	.476		
결혼만족도	-.008	.008	-.102	-1.063		
양육스트레스	-.003	.004	-.075	-.732	.246	5.256***
우울	.004	.014	.028	.271		
모민감성	.419	.085	.424	4.908***		
언어연령	.009	.008	.130	1.151		
지적능력	.009	.010	.105	.927		

\*  $p < .05$ , \*\*  $p < .01$ , \*\*\*  $p < .001$

있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VIF가 10이상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관련변인들은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약 24.6%( $R^2 = .246$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어머니의 민감성( $\beta = .419, p < .001$ )이 애착안정성에 매우 높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외 다른 변인들은 애착안정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 3. 장애유형에 따른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영향의 차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라 애착안정성과 그 관련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유형에 따라서 애착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 환경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아동의 발달수준과 관련된 변인들도 장애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즉, 정신지체아동과 전반적 발달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표 5. 장애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장애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
애착안정성	정신지체	73	.15	.95	1.738
	전반적 발달장애	48	-.17	1.07	
모민감성	정신지체	73	.09	.89	1.224
	전반적 발달장애	48	-.14	1.20	
사회적지지	정신지체	73	40.93	9.11	-.768
	전반적 발달장애	48	42.21	8.68	
결혼만족도	정신지체	73	56.93	12.39	.641
	전반적 발달장애	48	55.44	12.75	
양육스트레스	정신지체	73	137.83	28.46	.597
	전반적 발달장애	48	134.82	24.89	
우울	정신지체	73	11.13	7.79	-.156
	전반적 발달장애	48	11.36	7.66	
언어연령	정신지체	73	35.10	15.19	1.252
	전반적 발달장애	48	31.67	14.01	
지적능력	정신지체	73	53.37	11.24	.902
	전반적 발달장애	48	51.42	12.25	

주) 애착안정성과 모민감성은 표준화된 점수임.

표 6. 장애유형별 관련변인들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정신지체(n=73)				전반적 발달장애(n=48)			
	B	SE	$\beta$	t	B	SE	$\beta$	t
상수	-.525	1.076		-.488	.483	2.053		.235
사회적지지	.006	.012	.061	.510	.007	.022	.056	.315
결혼만족도	-.007	.010	-.091	-.734	-.011	.014	-.130	-.785
양육스트레스	-.005	.004	-.139	-1.085	-.003	.008	-.070	-.366
우울	.000	.016	-.002	-.016	.018	.028	.126	.637
모민감성	.414	.115	.386	3.611**	.425	.145	.474	2.930**
언어연령	.008	.009	.120	.862	.007	.016	.087	.407
지적능력	.022	.012	.256	1.817	-.006	.018	-.065	-.314
$R^2$	.297				.227			
F	3.919**				1.683			

\*  $p < .05$ , \*\*  $p < .01$

주) 종속변인 : 애착안정성, 애착안정성과 모민감성은 표준화된 점수임.

어머니 관련변인인 어머니의 민감성, 양육스트레스, 우울에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사회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에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아동의 언어능력, 지적능력에도 정신지체아

동과 전반적 발달장애아동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장애유형별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아동과 전반적 발달장애아동 집단을 각 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정신지체아동과 전반적 발달장애아동 집단에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 중 어머니의 민감성(정신지체  $\beta=.386$ ,  $p<.01$ , 전반적 발달장애  $\beta=.474$ ,  $p<.01$ )만이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며, 그 외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정신지체아동이나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 모두, 어머니의 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애착안정성이 높아지지만, 다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사회 환경적 변인, 아동의 발달수준과 관련된 변인들은 애착안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원형이 되는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증진시키고 형성하기 위해서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중요성이 입증된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민감성, 아동의 지적능력, 그리고 아동의 언어능력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는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언어능력 및 지적능력에 비하여 어머니의 민감성이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어머니의 민감성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준 연구(Atkinson et al., 1999; Brooks-Gunn, 1984; Capps, Sigmam, & Mundy, 1994; van Ijzendoorn et al., 1992)들과 같

은 결과로, 이는 일반아동의 경우에 어머니의 민감성을 강조한 연구들(이진숙, 2001; Beckwith, Cohen, & Hamilton, 1999; Valenzuela, 1997; Ward & Carlson, 1995)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는 아동의 장애적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이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들(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1, 1993)과는 다른 결과로써,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애착의 보편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Bowlby(1969)에 의하면, 애착은 종 특유의 행동으로 모든 부모-자녀 간에 형성된다. 즉 생존을 위해 모든 아동은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끼며 어머니와 접촉하고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하게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족의 아동에게서 애착이 형성된다. 따라서 환경 및 생물학적으로 애착형성이 어려울 것 같은 대상들도 모두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예로 사회적 결핍을 주 증상으로 보이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들(Cohen, Paul, & Volkmar, 1987; 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3; Shapiro et al., 1987)도 낮은 상황에서 양육자를 다른 어른이 비해 더 선호하고 양육자에게 애착행동을 보인다. 이처럼 아동이 애착을 형성하는데 환경적, 신체적, 발달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동은 어머니와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Ainsworth et al., 1978). 따라서 언어능력 및 지적능력의 부족이나 장애유형이나 장애의 심각도는 장애아동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도 건청 아동과 동일하게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Lederberg와 Mobley(1990)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

지되며, 언어표현이 없는 자폐성 장애와 언어표현이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이 언어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보고한 Dissanayake와 Crossley(1996)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둘째는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이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애착형성에 관한 인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Bowlby(1980)에 의하면, 애착발달상 애착형성은 아동이 인지적으로 대상영속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인지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Piaget의 인지 발달과정에서 대상영속성은 만 7-8개월 정도에 형성되고 내적실행모델도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내적표상이 가능한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 완성된다. 따라서 발달연령이 만 2-3세가 넘는 경우는 이미 아동의 인지능력이 애착안정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아동을 선별할 때 발달연령이 만 2세 이상인 아동을 선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인 아동들은 이미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최소한의 인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수준이 애착안정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는 발달연령이 만 2세에서 3세에 해당하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을 연구한 연구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Sigman과 Ungerer(1984)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생활연령과 발달연령은 애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대상은 생활연령이 평균 51.9개월, 발달연령이 평균 24.1개월, 지적능력이 46.6으로 만 24개월이 넘는 아동들이었다. Shapiro 등(1987)도 30개월에서 63개월 된 자폐성 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아동의 발달수준과 장애유형이 애착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장애아동의

발달연령은 대부분 만 2세 이상이였으며, 장애유형이나 발달수준은 애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두 개의 가정들을 고려할 때, 장애아동의 발달수준이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수용할 만하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애착발달과정 상, 아동의 발달수준은 일반아동(King, Moreno, & Robinson, 2004)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아동의 생활연령이나 발달연령이 애착안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반아동의 애착이론과 같은 결과로, Bowlby(1969)의 주장처럼 애착은 모든 유기체에게서 나타난다는 중-특유의 행동이라 애착의 보편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심리적 우울, 양육스트레스들은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일반아동의 경우, 이들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연구들(Adam, Gunnar, & Tanaka, 2004; Atkinson et al., 1995, 2005; Easterbrooks, Biesecker, & Lyons-Ruth, 2000; Lyons-Ruth, Easterbrooks, & Cibelli, 1997; Slade et al., 1999; Stevenson-Hinde & Shouldice, 1995)과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 환경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들은 직접적으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어머니의 민감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연구들(이경혜, 2001; 정혜승, 김광웅, 2001; Allen et al., 2003; Dallaire & Weinraub, 2005; Huth-Bocks et al., 2004; van Ijzendoorn, 1995; Ward & Carlson, 1995)과 사회적 지지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

들은 장애아동의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연구들(권복순, 박영준, 2003; 이한우, 2002; 이현지, 2004; 홍영수, 김재엽, 2003; Dunn et al., 2001)을 고려할 때, 애착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과 애착안정성의 관계나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정신지체아동이나 전반적 발달장애아동 모두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민감성만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자폐성 장애아동이 다른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과는 달리 애착안정성의 형성 과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연구들(Dissanayake & Crossley, 1996; 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1, 1993; Sigman & Ungerer, 1984)과 다른 결과이다. 즉 전반적 발달장애아동의 경우도 다른 아동과 동일하게 애착안정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까지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지속적인 논쟁이 되어온 아동의 발달수준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논쟁에서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는 아동의 발달수준보다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는데 가장 커다란 의의가 있다. 기존의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관한 연구들이 단순히 아동의 특성과 같은 변인이나 어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변인들에만 관심을 한정

시키고 이들 변인만으로 애착안정성을 설명하려고 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와 같은 사회 환경적 변인,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애착안정성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그들 변인 중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의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애착안정성에 아동의 발달수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발달수준보다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어머니의 특성이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의 경로에 어머니의 행동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장애아동만 한정시켜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유형의 경우도 정신지체와 전반적 발달장애로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동일한 발달연령과 발달수준을 가진 일반아동 집단이나 다른 장애유형의 아동들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영향을 비교하여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의 특성을 좀 더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 환경적 변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경혜, 2001; 정혜승, 김광웅, 2001; Allen et al., 2003; Dallaire & Weinraub, 2005; Huth-Bocks et al., 2004; van Ijzendoorn, 1995; Ward & Carlson, 1995)에 의하면 이들 변인들은 어머니의 민감성이 라는 변인을 통하여 애착안정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변인 간에도 서로 상호성이 커서 이들 변인들 간에 대한 관계성을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가 직접 Q-sort 방법을 이용하여 어머니나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였다. 이는 평가시의 어머니의 기분과 이해도에 따라서 평가의 신뢰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민감성과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관찰자의 직접 관찰을 통하여 평가자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더욱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미향(2000). 영아기 애착관계변인과 모성행동 특성분석.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권복순, 박영준(2003). 장애아동 양육자의 양육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9, 191-219.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117, 141-150.
- 김승국, 김옥기(1985). 사회성숙도검사. 서울: 중앙성출판사.
- 김정미(2001). 부모-아동 반응성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련, 박량규(역)(1996).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박경자, 권연희(2002). 문제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행동과 관련된 변인: 결혼만족도, 자녀양육스트레스,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 박성연(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1), 139-158.
- 이경혜(2001).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애착안정성 형성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3(1), 153-171.
-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준거개발연구. 한국아동학회, 18(1), 131-148.
- 이진숙(2001).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6), 41-49.
- 이한우(2002). 발달장애아동의 가족지원특성과 양육스트레스 연구. 정서 및 학습장애 연구, 18(3), 327-349.
- 이현지(2004).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정서 및 행동장애연구, 20(3), 73-95.
- 임숙빈(1997).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모-아 애착증진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승, 김광웅(2001). 어머니 자신의 부모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애착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4(1), 95-105.
- 홍영수, 김재엽(2003).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과 배우자 지지. 연세사회복지연구, 9, 211-230.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Manual*.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dam, E. K., Gunnar, M. R., & Tanaka, A. (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 Ainsworth, M. D., Bleher, M. C., Waters, E., & Wi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llen, J. P., McElhane, K. B., Land, D. J., Kuperminc, G. P., Moore, C. W., Kelly, H. O., & Kilmer, S. L. (2003). A secure base in adolescence: Markers of attachment security in the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74*(1), 292-307.
- Atkinson, L., Scott, B., Chisholm, V., Blackwell, J., Dickens, S., & Tam, F. (1995). Cognitive coping, affective distress, and maternal sensitivity: mother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668-676.
- Atkinson, L., Scott, B., Chisholm, V., Scott, B., Goldberg, S., Vaughn, B. E., Blackwell, J., Dickens, S., & Tam, F. (1999). Maternal sensitivity, child functional level, and attachment in down syndrom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4*(3), 45-66.
- Atkinson, L., Goldberg, S., Raval, V., Pederson, D., Benoit, D., Moran, G., Poulton, L., Myhal, N., Zwiars, M., Gleason, K., & Leung, E. (2005).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state of mind and sensitivity in the prediction of infant attachment sec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42-53.
- Beckwith, L., Cohen, S. E., & Hamilton, C. E. (1999). Maternal sensitivity during infancy and subsequent life events relate to attachment representation at early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93-700.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ooks-Gunn, J. (1984). Maternal responsiveness in interactions with handicapped infants. *Child development, 55*, 782-793.
- Capps, L., Sigman, M., & Mundy, P. (1994). Attachment security in children with autism. *Developmental Psychology, 6*, 249-261.
- Cohen, D. J., Paul, R., & Volkmar, F. R. (1987). Issue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and associated conditions. In D. J. Cohen, A. M. Donnellan, & R. Paul(Eds.). *Handbook of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pp. 20-40). New York: Wiley & Sons.

- Cowan, P. A. (1997). Beyond meta-analysis: A plea for a family systems view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601-603.
- Dallaire, D. H. & Weinraub, M. (2005). Predicting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at age 6: The contributio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maternal sensitivity, and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93-408.
- Dawson, G. & Lewy, A. (1989). Arousal, attention, and the socioemotional impairments of individuals with autism. In G. Dawson(Ed.). *Autism: Nature, diagnosis, and treatment*(pp. 49-7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e Wolf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71-591.
- Dissanayake, C. & Crossley, S. A. (1996). Proximity and sociable behaviours in autism: Evidence for attach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2), 149-156.
- Doll, E. A. (1965).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Condensed Manual of Directions*. Minesota: American Guidance Service.
- Dunn, M. E., Burbine, T., Bowers, C. A., & Tantleff-Dunn, S. (2001). Moderators of stres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7*(1), 39-52.
- Easterbrooks, M. A., Biesecker, G., & Lyons-Ruth, K. (2000). Infancy predictors of emotional availability in middle childhood: the roles of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2), 170-187.
- Fish, M. & Stifter, C. (1995). Pattern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attach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8*, 435-446.
- Huth-Bocks, A. C., Levendosky, A. A., Bogat, A., & von Eye, A. (2004). The impact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contextual variables on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75*(2), 480-496.
- Isabella, R. A. (1993). Origins of attachment: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across the first year. *Child development, 64*, 605-621.
- King, L., Moreno, A. J., & Robinson, J. L. (2004). Maternal preconceptions about parenting predict child temperament,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ren's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1081-1092.
- Lederberg, A. R. & Mobley, C. E. (1990). The effect of hearing impairment on the quality of attachment and mother-toddler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1*, 1596-1604.
- Lyons-Ruth, K., Easterbrooks, M. A., & Cibelli, C. D. (1997). Infant attachment strategies, infant mental lag, and maternal depressive

- symptom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t age 7. *Development Psychology*, 33(4), 681-692.
- O' Connor, T. G. (1997). *Matern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the MMPI and infant attach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Belsky(1999)에서 재인용.
-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Pederson, D. R., Gleason, K. E., Moran, G., & Bento, S. (199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34(5), 925-933.
- Roach, A.J., L.P. Frazier, & S.R. Bowden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Rogers, S. J., Ozonoff, S., & Maslin-Cole, C. (1991). A comparative study of attachment behavior in young children with autism or other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3), 483-488.
- Rogers, S. J., Ozonoff, S., & Maslin-Cole, C. (1993). Developmental aspects of attachment behavior on young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6), 1274-1282.
- Shapiro, T. S., Sherman, M., Calamari, G., & Koch, D. (1987). Attachment i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4), 480-484.
- Sigman, M. & Ungerer, J. A. (1984). Attachment behaviors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14(3), 231-244.
- Sigman, M. & Mundy, P. (1989). Social attachment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1), 74-81.
- Slade, A., Belsky, J., Aber, J. L., & Phelps, J. L. (1999). Mothers' representa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toddlers: Links to adult attachment and observed mo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611-619.
- Stevenson-Hinde, J. & Shouldice, A. (1995). Maternal interactions and self-reports related to attachment classification at 4.5 years. *Child Development*, 66, 583-596.
- van den Boom, D. C.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Next steps for developmentalites. *Child Development*, 64(4), 592-594.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1-17.
- van IJzendoorn, M. H., Goldberg, S., Kroonenberg, P. M., & Frenkel, O. J. (1992). The relative effects of maternal and child problems on the quality of attachment: A

- meta-analysis of attachment in clinical samples. *Child Development*, *63*, 840-858.
- Vaughn, B. E., Goldberg, S., Atkinson, L., Marcovitch, S., MacGregor, D., & Seifer, R. (1994). Quality of Toddler-mother attachment in children with down syndrome: Limits to interpretation of strange situation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95-108.
- Valenzuela, M. (1997). Maternal sensitivity in a developing society: The context of urban poverty and infant chronic undernutr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45-855.
- 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 Wartner, M. J., Grossman, K., Fremmer-Bombik, E., & Suess, G. (1994). Attachment patterns at age six in South Germany; Predictability from infancy and implications for pre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1014-1027.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41-65.
- Woolfe, T., Want, S. C., & Siegal, M. (2002). Signposts to development: theory of mind in deaf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 768-778.

---

1차 원고 접수: 2008. 1. 2  
수정 원고 접수: 2008. 2. 5  
최종 게재 결정: 2008. 2. 6

# The Effect of Related Variables on Attachment Stability 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Eun-sil Kim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how relative variables had effect on the attachment stability 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significancy among several variable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 We selected 48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ability, 73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children, and 121 of his or her mother for our study. We surveyed them on social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depression, mother's sensitivity, children's intellectual ability and language ability. We verified how these variables have effect on attachment stability with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Only mother's sensitivity had effect on the attachment stability 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disability type with children didn't have any effect on the attachment stability. Mother's sensitivity for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and mental retardation children had more effect on attachment any other variables.

*keywords* :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achment stability, mother's sensitivity